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건설을 계기로 사찰 건축의 현대화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도심도 아닌 시골 변두리에 세워진 절집 건물 한 채가 화제다. 충북 괴산군 증평읍 두타산 끝자락에 자리잡은 법천사(주지 석호 스님)이다.

아름드리 나무기둥 대신 콘크리트와 까만 벽돌로 지어진 3층 높이의 단층 대웅전은 우선 모양부터 눈길을 끈다.



△충북 괴산군 증평읍 두타산 자락에 현대적 사찰 건축을 선보인 법천사가 들어섰다(사진 아래). 담 모양을 본뜬 대웅전은 30여평 규모에 도청을 열면 주위 자락까지 끌어들이는 내부 설계가 특징이다(사진 위쪽).

눈길끄는 현대식 사찰 법천사

의안을 석탑에서 따온 대웅전은 화려한 문양이나 단청 없이도 절집 분위기를 훌륭하게 살려내고 있다. 후불탱화도 불상 뒤편 장문을 통해 보이는 두타산 능선이 대신한다. 불상 정면의 창을 통해선 연꽃을 닮은 앞산 자락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 김개천(이도건축 대표) 씨는 "법당 내부 규모는 30평밖에 안 되지만 앞뒤 좌우 장문을 열면 주변 경관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한정 없는 크기'를 느끼게 설계했다"며 "처

콘크리트·벽돌로 석탑형태 대웅전

화려한 문양·단청 없이도 절집 분위기

처마밑 창 통해 햇빛...자연 속에 있는 느낌

마뭉 창으로 햇빛까지 은은하게 들어와 법당에 앉아 있으면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당 옆 2층 건물(120평)도 겹으로 보기엔 하나지만 들어가 보면 1층 종무소와 선방을 겸한 공양간, 2층 요사채가 분리돼 있다. 주지 석호 스님은 "별채부터 입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며 "처음엔 단청 하나 없

는 법당이 낫설어 하던 마을 사람들도 담 형태 때문인지 이내 친숙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법천사는 지금도 법당에 모실 삼

존불 조성 불사가 한창이다. 앞으로 지을 산신각과 종각, 해우소도 새로운 형태로 짓겠다는 석호 스님은 "불교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비불자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사찰 건축도 단순히 옛날 것을 모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043)838-3562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행궁+속박시설 '院' 결합 특이형태 사찰

혜음사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파주시, 사유지 매입...2007년까지 발굴

지난해 2차 발굴조사에서 임시 공궐인 행궁과 속박시설인 원(院)이 결합한 특이한 형태의 사찰로 밝혀진 경기도 파주 혜음사지(惠陰寺址)의 국가사적 지정이 추

진된다. 파주시는 지난해 경기도기념물 181호로 지정된 혜음사지에 대해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발굴 및 유적 정비사업을 벌

린 뒤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아 보존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혜음원지는 전체 9천여 평 가운데 1천2백여 평만 발굴 조사를 한 상태. 시는 유적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한편 3월경 3차 발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부식의 <해음사신창기>에는 고려 예종 15년(1120)~17년(1122) 개경과 남경 사이를 왕래하는 행인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찰과 속박시설을 결합한 혜음사를 창건했으며, 국왕의 행차에 대비해 별원(別院)인 행궁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권형진 기자

대전 첫 불교문화제

11일 시민회관에서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불교문화제가 열린다.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과 백제불교문화대학(학장 사재동)은 11일 오후 6시 30분 대전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불교문화의 연화세계'라는 주제로 불교문화제를 연다.

이날 불교문화제는 1부 법회, 2부 사재동 학장의 '불교문화학의 방향과 방법과 방법론' 서남교씨의 포교방법론 발표를 비롯 사찰순례의미 소개와 시낭송 등으로 이뤄지는 학술 및 문학발표회가 열린다. 또 3부 문화예술공연은 다라니 독송, 불교가극 발표, 불교무술시범, 승무, 관음향무와 도살풀이, 불교민요, 불교강장, 농악 공연 등이 펼쳐진다.

장곡스님은 "전법도량지정 이후 그 결실을 총정리하여 지역사회에 회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불교 문화정답을 위해 불교문화제를 연례행사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티베트식 수미광명탑

대원사, 낙성법회 봉행



보성 대원사주지(원장)는 15일 오후 1시 15m 높이의 수미광명탑(사진) 낙성법회를 개최한다.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티베트 양식으로 세워진 수미광명탑에는 2001년 티베트박물관 개관 당시 티베트 툽텐 린포체 스님이 보내준 가삼불 사리 1과와 네랄 수암부 사원에서 보내준 사리 3과 등이 봉안된다.

수미광명탑은 상륜부 절림과 천수관을 보살을 모신 감실, 법당으로 구성돼 있다.

탑 내부에 설치된 법당에는 약사여래삼존불을 봉안했으며, 천장과 사방 벽면에 칼라차크라 만다라와 영산회상도, 아미타불극락정토도등 벽화가 각각 조성됐다. 박봉영 기자



겸손·하심...드러나지 않는 신행

해인불교경전대학 이정순 학생회장

새벽 5시, 새벽예불로 이정순(50.서상화) 보살의 하루일과는 시작된다. 집에 따로 마련된 기도방에서 벌써 10년째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는 새벽예불은 이 보살 나름의 정진 방법이다. 반복되는 일상처럼 변함없는 예불이지만 어떤 날은 눈물겹도록 간절할 때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 안에서 평안하길' 기원하는 이 보살의 기도는 지칠 줄 모른다. 처음 100일기도로 시작했던 것이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듯 이 보살의 신행은 소리없이 흐르는 깊은 강을 닮았다.

참다운 불발을 알게 해준 전 해인사 감주이자 해인정사 주지인 수진스님과 그의 인연으로 해인정사 해인불교경전대학 학생회장을 맡은 지도 5년째.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 경전 공부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맡게 된 직책일 뿐, 회장이라고 특별한 것도 드러낼 일도 없

다. 3월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 모집과 안내장 발송 등 작업에 바쁜 이 회장은 있는 듯 없는 듯 회장의 직분은 다한다. 매년 3월부터 3~4개월 동안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원전을 읽고 배우며 지내는 4년 동안, 이 회장의 활동은 달빛처럼 은은해서 아직도 회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다. 별다른 신도회도 없고 관음예불회도 회원뿐이니 사실상의 신도회장 역할을 해야 하는 이 회장. 한창 진행중인 1천여 명이 넘는 불교회관, 관동전, 관음전 등의 대작불사와 사찰 대조사, 봉사활동 등을 알뜰하게 챙겨왔지만 항상 스님과 신도를 덕분이라는 겸손과 하심을 잊지 않는다.

"우리 절 신도들은 복이 많아요. 주지 스님께 경전을 배우며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안을 향해 있는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지 않기 위해 언제나 감사한 마음 뿐이다. 벌써 십 수년째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은 스스로의 정진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었고, 이제 들로 없는 도반이 되었다. 이 회장은 새벽예불을, 남편은 사시예불, 딸은 저녁예불을 울리며 신심을 다져왔을 정도.

이 회장은 "영아원을 열어 버려진 아이들을 부처님 품안에서 키워보고 싶다는 발원을 하며 경전 공부로 몰려섬이 없는 신심을 키우고 있다."

천미희기자

있는 듯 없는 듯 사찰 대조사 처리

"영아원 열어 버려진 아이 돕고 싶어"



△3월 개강을 앞둔 해인불교경전대학 신입생 모집을 위해 이정순 회장(맨오른쪽)이 신도들과 안내장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추천의 말

수진스님 해인정사

32년 출가 생활 중에 신행과 정진이 어릴 때부터 결코 드러내지 않는

이 회장 같은 분을 만난 것은 큰 기쁨입니다. 일을 하고도 했다는 표시가 없는데도 해야 할 일을 틀림없이 하는 책임감이 투철한 신도입니다. 그만큼 상을 내지 않고 일을 하므로

함없이 도리 다하는 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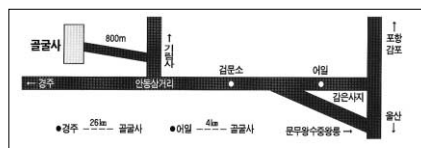
3500여명을 대표하는 회장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승가가 배우는 내용을 불자들에게 그대로 가리키는 해인불교경전대학 학생회장직을 맡아 신도들의 경전 공부 뒷바라지를 열성으로 하고 있으며 사찰에서 행하는 독거노인 후원, 각종 봉사활동 등에 신도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열린 사찰을 지향하는 해인정사를 만드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방생 성지순례는 경주 골굴사로 오세요



골굴사는 1천5백년전 신라시대에 마애아미타불(보물제581호)과 12처 석굴이 조성되었으며 인도의 아잔타나 중국 둔황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석굴사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천오백년 미소가 중생들의 삼세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거리에 지장기도로 유명한 기림사와 오어서, 동해의 문무대왕 수증릉과 같은사지, 석굴암 등은 30분 이내의 거리에 인접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내에 있는 선무도 대학과 수련모습을 견학 할수도 있습니다.



경주에서 보문 관광단지를 지나 동해안의 감포 방향으로 약 26KM 지점에 골굴사와 기림사의 진입로인 안동3거리가있다. 이정표를 따라 좌회전을 하면 500M 전방 좌측에 골굴사 표시판과 일주문이 서있다. 일주문을 통과해서 700M 거리에 한국 최고의 석굴사원 골굴사와 천년의 미소를 머금은 마애아미타불이 중생들을 맞이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武道(禪기공) 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원 골굴사에서는 건강과 수행을 위한 수련회가 년중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선기공 지도자 과정 원생을 모집합니다. 2년 수학기 총장명의 수료증과 본 협회의 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교학과 (서울)02-2260-3782 (경주)054-770-2554

- 특성과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심신의 건강을 도와주는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의 선생님들께서 추천한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단,1월과8월은 일반학생 수련회관개로 받지 않습니다.)
- 무애지 기공 수련에 관심이 많거나 전문지도자가 되고 싶은분 (출가행자는 전액무료이며, 대학전학<불교학, 체육학> 까지 보장 됩니다.)
- 불교학·생리, 수행단계, 각학교, 체육, 예술, 사회단체, 기업체의 위탁연수 및 출강이 가능합니다.
- 경주관광을 겸한 선무도 체험을 원하는 수학기여향단의 단시간 연수를 예약 가능합니다. (사찰관광 및 선무도수련, 약2시간)
- 본 협회 신하에 약 20여개소의 국내지원, 지부 및 4개국에 해외 지원이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6개대학교에 교양교육 및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본 협회는 현재 학교법인 「선무도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무도, 는 본 협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칭(상표등록 NO 제 022354호)이므로 유사단체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www.golgulsa.com / msnudo.com 전 화 054)744-1689, 745-0246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알게 되었는데로부터 금강산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삼시다. 프로에서승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찾아서 방영이 후 전국 많은 불자들이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탐채로 하여(한박스 60봉) 한 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들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 가 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할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도록)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용사례” 페 복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원종테고 보유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가수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방영